

유아기질이 유아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놀이성 및 자기 조절력의 매개효과-

김애숙*, 여재희**

나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for Happiness -The mediation of Playfulness and Self-regulation-

Ae-Suk Kim*, Jae-Hyi Yeo**

Professor at Naju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san Hy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질과 유아행복감, 놀이성, 자기조절력의 직접적인 효과와 유아기질과 유아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유아기질에 따른 유아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피고 유아행복감 증진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질의 활동성은 유아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기질의 적응성, 활동성, 접근-회피성은 놀이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기질의 생리적 규칙성은 자기조절력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은 유아행복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놀이성은 유아기질의 적응성, 활동성, 접근회피성과 행복감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기조절력은 유아기질의 생리적규칙성과 유아행복감 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기질의 하위요인들에 따라 유아행복감, 놀이성,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 변인인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이 유아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유아행복감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성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여 유아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유아기질, 유아행복감, 놀이성, 자기조절력, 유아 보육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infant happiness, playfulness, and self-regul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layfulness and self-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temperament and infant happines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influence on infant happiness according to infant temperament. The purpose is to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nformation for promo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ivity of infant temperamen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fant happiness. Second, the adaptability, activity, and approach-avoidance of children's temperament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layability. Third, the physiological regularity of infant temperamen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regulation. Fourth, playfulness and self-regulatio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happiness. Fifth, playfulness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infant temperament adaptability, activity, approach avoidance, and happiness. Sixth, self-regulation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physiological regularity of infant temperament and infant happiness. In conclusion, this study can improve children's happiness by analyzing the direct effects on children's happiness, playfulness, and self-regulation according to the sub-factor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 indirect influence of the mediating variables, playability and self-regulation, on children's happiness. It is meaningful in provid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ic data for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by understanding what direction there is.

Key words infant temperament, infant happiness, playfulness, self-regulation, infant care

본 논문은 김애숙 박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한 논문임

Received 01 Apr 2024, Revised 20 Apr 2024

Accepted 25 Apr 2024

Corresponding Author: Ae-Suk Kim
(Naju University)

Email: whamin546@gmail.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행복은 삶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행복은 평화로운 감정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단순함을 넘어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특징을 지닌다(도남희 외, 2014; Biswas-Diener, 2009)[1][2]. 특히 유아행복감은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Park & Seligman, 2004)[3]. 우리나라에서도 유아행복감의 중요성을 인정한 보건복지부(2014)는 중앙보육 정책위원회를 열어 중장기비전으로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아이행복플랜’을 수립하였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을 실시한 가운데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7)[4].

유아행복감이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며 주위 상황에 대한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가족과 친구 그리고 교사 등과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뿌듯함을 느끼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김도란, 김정원, 2008; 박경숙, 2005) [5][6].

유아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최근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안미현, 2017)[7]. 놀이는 유아 발달과정 중 일부분으로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에 대해 알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함과 동시에 유아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기회로 독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Isenberg & Quisenberry, 1998)[8].

유아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유아의 자기 조절력이다(온은아, 이선경, 2017)[9]. 자기 조절력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계획하고 평가하여 언어표현 및 행동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자기관리의 능력을 의미한다(김효정, 2017)[10]. 즉, 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목표로 목적 달성하기 위해 순간적인 충동적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Kopp, 1982)[11].

한편, 유아마다 가지고 있는 유아기질의 특성이 달

라서 같은 놀이를 하더라도 어떤 유아에게는 흥미로울 수 있으나, 어떤 유아에게 있어서는 어렵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유아기질과 놀이성과의 관계는 연구의 관심사가 된다. 또한, 유아기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조절에서 개인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만들어낸다(Shaffer, 2005)[12].

종합해보면, 유아행복감은 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성격특성과 삶의 여건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아기질과 연관성을 가지며, 놀이성은 유아기 본인의 놀이에 대한 경험이 유아행복감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아행복감의 요인인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정서, 몰입, 만족감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유아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 조절력은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주기 때문에 유아행복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유아행복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 또는 프로그램에 따른 유아행복감을 살핀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유아기질에 따른 유아행복감 영향 관계를 살핀 연구는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질이 유아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 놀이성과 유아행복감, 자기조절력과 유아행복감 그리고 유아기질과 놀이성, 유아기질과 자기조절력 간의 직접적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기질이 유아행복감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이 매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질이 유아행복감, 놀이성,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과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이 유아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유아행복감을 향상할 수 있는 유아기질과 놀이성, 자기조절력이 어떠한 영향 관계인지 파악하여 유아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유아기질

일반적인 기질은 생물학적 특성과 유전적 요소를 지닌 후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 이는 개인의 행동 양식과 정서 반응을 의미하고 개인의 활동 수준, 사회성, 적응성을 포함하고 있다(Rothbart & Bates, 1998)[13]. 따라서 유아기질은 인간 발달에 있어 개인차를 의미하고 생후 초기부터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고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허미경, 2009) [14].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기질은 다학문학적 영역에서 연구되었고, 유아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성격의 한 측면으로 감정적인 경향과 행동적인 반응 특성에 초점을 두며 태내기부터 형성된 성격의 기초로 보았다(김유정, 2014)[15].

천희영(1992)[16]은 Thomas와 Chess(1977)[17]의 유아기질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어머니와의 심층 면접을 토대로 자녀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근거로 유아기질을 평정하였으며,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활동성, 접근-회피성,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정서성 등 다섯 가지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2.2 유아행복감

유아행복감이란, 유아가 영위하는 삶을 통해 경험한 주관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생각을 토대로 적극적인 삶을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Campbell et al., 1976)[18]. 사전적 의미의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한 정도'를 이야기하고 그러한 상태와 마음가짐 그리고 느낌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5)[19]. 이는 외부 환경에 대한 조건과 우연보다는 올바른 생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 가진 재능과 특성을 개발하여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정신상태를 의미한다(Seligman, 2002)[20].

유아행복감은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기초로 유아가 즐겁게 현재의 삶을 긍정적인 감정과 더불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숙미, 2021)[21]. 이처럼 유아행복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신체, 건강 그리고 심미감 형성과 이웃과 또래에 대한 배려 및 관심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유아행복감은 형성되

고, 유아가 느끼는 유아행복감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은주(2009)[22]의 유아 행복 척도를 토대로 건강성, 심미성(심미감), 몰입성과 또래 관계성, 교사 관계성, 생활 관계, 정서 관계, 부모 관계 및 인지, 성취 관계 등을 통해 유아행복감을 측정하는 구성요소로 보았다.

2.3 놀이성

유아들에게 놀이는 생활이며, 유아의 놀이는 심리·사회적 발달의 변인 중 하나로 개성(personality)적 특성으로 타고난 행동과 성격이 환경적인 맥락 안에서 발달 가능성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인간이 태어난 후 본능적으로 자기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놀이의 시작이라고 보았다(배미경, 2015)[23]. 이를 통해 놀이는 유아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유아의 삶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놀이와 유아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생활 그 자체임을 설명하고 있다(문성영, 2019)[24].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놀이를 경험하고 놀이를 통해 성숙해지며 발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통합하고 놀이에 몰두하며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고 축적한다고 보았다(Saracho, 1988)[25]. 유아가 놀이 시 행동하는 놀이 형태를 일으키는 태도를 놀이성으로 보고 자발적인 참여 태도와 행동을 관찰하여 놀이성의 구성요소가 구성되었으며 학자마다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변은진, 2020)[26].

2.4 자기조절력

자기조절력이란 자신의 미래에 더 나은 만족감과 결과물을 위해 계획하고 의도하는 것이다. 또한, 개개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또래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로 하는 사회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정란 외, 2003)[27].

자기조절력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자기조절력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문제 상황에 대해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희태, 이임순, 2009)[28].

자기조절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선행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여러 선행연구자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금난(2011)[29]은 외부의 간섭 없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주변 상황에 맞춰 정서와 행동을 조절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변의 요구 사항에도 순응하면서 복합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기조절력을 정의하였다.

2.5 가설설정

본 연구는 유아기질과 유아행복감, 놀이성, 자기조절력 간의 직접적 영향과 유아기질과 유아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의 간접적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유아기질은 유아행복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유아기질은 놀이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유아기질은 자기조절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놀이성은 유아기질과 유아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5〉 자기조절력은 유아기질과 유아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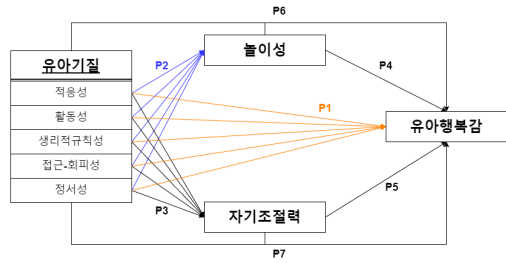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질이 유아행복감, 놀이성,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이 유아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유아기질이 유아행복감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이 어떠한 매개효과성을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3.2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만 3~5



[그림 1] 연구모형

세 유아들의 어머니와 담임교사 5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어머니용과 교사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설문지를 배부하는 데 어머니에게는 유아기질을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유아의 놀이성, 자기조절력 그리고 유아의 행복감을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580부였으며, 이 중 568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의 중복체크 및 무응답 등의 21부를 제외한 547부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3.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질, 놀이성, 자기조절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아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변인의 측정 도구를 살펴보면 유아기질, 유아행복감, 놀이성, 자기조절력에 대한 측정 도구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질을 살펴보기 위해 Thomas와 Chess(1977)[30]에 의해 개발된 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PTQ)와 Carey와 McDevitt(1978)[31]에 의해 개발된 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RITQ)를 바탕으로 천희영(1992)[16]이 개발한 연구용 기질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기질의 평정척도는 어머니가 유아를 관찰하고 해당 하위요인에 응답하는 형태로 5개 구성 차원, 즉 적응성(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활동성(신체적 움직임의 활발한 정도), 생리적 규칙성(수면, 식사 등에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성), 접근-회피성(약하거나 강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

도), 정서성(반응에 수반되는 정서 상태)에 따른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주(2010)[22]가 개발한 유아 행복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유아행복척도는 9개의 하위요인으로 몰입(외부의 자극에도 변함없는 집중력), 건강(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영성(심미적인 반응 및 표현 정도), 인지 및 성취(학습한 것을 인식하고 성장), 정서(유아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정도), 생활 만족(전반적인 생활의 만족도), 관계성을 보는 또래 관계, 교사 관계, 부모 관계에 따른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아의 놀이성 측정을 위하여 Barnett(1990)[34]이 개발한 아동용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중심으로 김영희(1995)[35]가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문항을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놀이성 검사 도구의 평정자는 유아의 담임교사로 유아를 관찰하고 놀이성의 하위변인을 측정하였다. 놀이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으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 등 5개 영역으로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 도구는 Kendall과 Wilcox(1979)[36]에 의해 개발된 자기조절력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 SCRS)를 수정·보완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유아용 자기조절력척도 검사 도구의 평정자는 유아를 관찰하는 담임교사로 자기조절력의 하위요인별로 측정하였다. 유아 자신의 의도 및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통제력 10문항과 행동을 유보하며 기다리면서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의 충동성 감소 10문항, 외부의 자극들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작용, 즉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억제하는 능력을 지닌 주의 집중력 10문항이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유아기질과 유아행복감, 유아놀이성, 유아자기조절력의 직접적효과와 유아기질과 유아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유아놀이성과 유아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통계프로그램인 SPSS 25.0과 AMOS 24.0을 활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경로 모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chi^2(4)=5.685$ 이고 허용오차 0.01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값은 0.028로, 일반적으로 0.08 이하의 수준이면은 수용할 만한 적합도로 간주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37].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0.997로 0.95 이상 이므로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고, 비교 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0.996으로 0.95 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Hu & Bentler, 1999)[37].

〈표 1〉 경로모형 적합도

χ^2	df	GFI	RMSEA	LO 90	HI 90	IFI	CFI	TLI
5.685	4.000	0.997	0.028	0.000	0.075	0.996	0.996	0.969

4.2 연구가설 검증

경로모형에서 주요 요인 간 경로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기질의 하위 요인인 활동성이 놀이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beta=0.167, p<0.001$) 접근-회피성에서 접근성이 높을수록 놀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04, p<0.05$). 그 밖에 적응성 역시 놀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beta=0.150, p<0.001$) 나타났지만,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질의 하위요인인 생리적 규칙성($\beta=0.116, p<0.001$)이 영향을 미쳤다. 그 이외 유아기질의 하위요인은 직접적으로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05$). 활동성은 유아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beta=0.079, p<0.05$) 자기조절력은 유아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beta=0.326, p<0.001$), 놀이성 역시 유아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84, p<0.001$). 두 매개변인(놀이성과 자기조절력)에 따른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놀이성은 유아기질 하위요인인 활동성과 유아행복감의 관계($\beta=0.081, p<0.01$)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접근-회피성과 유아행복감의 관계($\beta=0.051, p<0.05$), 역시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응성과 유아행복감의 관계 역시 놀이성에 의해 유의하게 매개되었다($\beta=0.072, p<0.01$). 다음으로, 자기조절력은 생리적규칙성과 유아행복감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38, p<0.001$).

〈표 2〉 매개효과 검증

간접효과	B	Lower	Upper	β
활동성 → 놀이성 → 유아행복감	0.052	0.029	0.072	0.081**
활동성 → 자기조절력 → 유아행복감	-0.006	-0.021	0.010	-0.009
접근-회피성 → 놀이성 → 유아행복감	0.030	0.011	0.052	0.051*
접근-회피성 → 자기조절력 → 유아행복감	-0.012	-0.027	0.002	-0.019
생리적규칙성 → 놀이성 → 유아행복감	-0.02	-0.037	-0.003	-0.039
생리적규칙성 → 자기조절력 → 유아행복감	0.019	0.007	0.032	0.038**
정서성 → 놀이성 → 유아행복감	0.017	-0.001	0.035	0.030
정서성 → 자기조절력 → 유아행복감	0.000	-0.013	0.013	0.001
적응성 → 자기조절력 → 유아행복감	0.012	-0.005	0.028	0.018
적응성 → 놀이성 → 유아행복감	0.049	0.025	0.073	0.072**

* $p<.05$, ** $p<.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기질, 유아행복감, 놀이성, 자기조절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질의 활동성은 유아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활동량 많을수록 유아행복감은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견

해를 같이한다(이진숙, 김은주, 2013)[28]. 따라서 유아보다 유아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아기질적 특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놀이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함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 준다.

둘째, 유아기질의 적응성, 활동성, 접근-회피성은 놀이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놀이에 임하는 유아가 놀이성이 높다고 보고한 우수경(2008)[39]과 견해를 같이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놀이성 향상을 위해 유아기질을 잘 파악하고 그 기질 특성에 적합한 놀이 방법 등을 개발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 유아기질의 생리적 규칙성은 자기조절력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질의 하위요인인 생리적 규칙성 즉, 유아가 놀이할 때 식사, 배변 습관, 수면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자기조절력과 관계가 있다는 김은영(2015)[40]의 연구와 일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해 유아기질을 잘 파악하고 그 기질 특성에 적합한 자기조절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넷째, 놀이성은 유아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본 박은영(2012)[41]의 연구와 일치되는 것으로 유아행복감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유아의 놀이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야 한다.

다섯째, 자기조절력은 유아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통제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수행 능력에 대한 만족은 유아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성다겸(2015)[42]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유아행복감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여섯째, 놀이성은 유아기질의 적응성, 활동성, 접근 회피성과 행복감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성이 유아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정경민(2017)[43]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 결과로서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하며, 유아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

에 대해 잘 적응하는 유아의 경우 높은 놀이성을 보이며 이는 유아의 질 높은 유아행복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적응성, 활동성, 접근-회피성 등의 기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유아의 경우 놀이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때 행복감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력에서 유아기질의 하위요인 중 생리적 규칙성은 유아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유아기질의 하위요인(정서성, 적응성, 활동성, 접근-회피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식사, 배변 습관, 수면 등의 일상생활에 있어 규칙적이면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나타내며 이는 유아의 행복감을 향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유아행복감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유아를 보육하는 부모와 교사는 유아기질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아기질 특성에 적합한 놀이성 및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 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수도권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 간 발달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면서 유아기질, 놀이성, 자기조절력, 유아행복감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견해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드러내거나 유아들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기에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적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질의 하위요인에 따라 유아행복감, 놀이성,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인인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이 유아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유아행복감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성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여 유아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1] 도남희, 배운진, 김지예(2014).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2] Biswas-Diener, R.(2009). Material w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307-322.
- [3]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603-619.
- [4]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 [5] 김도란, 김정원(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 간의 관계연구. *열린유아교육 학회지*, 13(6), 311-333.
- [6] 박경숙(2005). 놀이중심의 인간관계개선 집단상담이 초등학교 학생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안미현(2017). 유아의 놀이성 및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213-228.
- [8] Eisenberg, N., Fabes, R. A.(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9] 온은아, 이선경(2017). 유아의 행복감 및 자기조절력과 유아교육기관 적응능력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2(2), 133-153.
- [10] 김효정(2017). 유아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Kopp, C. B.(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12] Shaffer, D. R.(2005). 발달심리학. 송길연·장유경·이지연·정윤경(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13] Rothbart, M. K., & Bates, J.E.(1998). Temperament. In N. Eisenberg & W. Damo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906-912). NY: Wiley.
- [14] 허미경(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과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김유정(2014). 유아의 동기 유형: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상호작용과의 관련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천희영(1992).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 Mazel.
- [18] Campbell, A., Converse, P.E., & Ro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Y: Sage.
- [19] 국립국어원(2015).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 [20] Diener, E., & Seligman, M. E.(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 [21] 김숙미(2021). 유아교사가 지각한 정서적 지지와 그림, 심리적 행복감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이은주(2010). 유아행복척도 개발연구: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배미경(2012). 유아의 기질 및 놀이성과 또래갈등해결 전략 간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2), 197-220.
- [24] 문성영(2019). 부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놀이성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5] Saracho, O. N.(1988). Preschool reading attitude scal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37(1), 93-108.
- [26] 변은진(2020). 유아놀이성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7] 양옥승,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2), 69-90.
- [28] 김희태, 이임순(2009).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과 또래유능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1), 1-21.
- [29] 하금난(2011).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 놀이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 Mazel.
- [31] Carey, W. B., & McDevitt, S. C.(1978). 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Pediatrics, 61, 735-739.
- [32] Barnett, L. A.(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 Culture, 3, 319-336.
- [33] 김영희(1995). 아동의 놀이성 군 확인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4] Kendall, D. C., & Wilcox, I. E.(1979). Self 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
- [35] Hu & Peter 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36] 이진숙, 김은주(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2(5), 240-241.
- [37] 우수경(2007). 유아의 성, 기질, 정서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 14(4), 427-451.
- [38] 김은영(2015).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 또래 유능성, 자기조절능력이 유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9] 곽은영(2012).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 및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40] 성다겸(2015). 초등학교학년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에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1] 정경민(2017).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기질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 애 숙 (Ae Suk Kim)



- 2020년 3월~2022년 2월: 중부대학교 대학원 유아상담복지학과 박사
- 2023년 3월~현재: 성산효대학원 평생교육학과
- 2021년~현재: 우리아이행복돌봄 센터 근무
- 2024년 4월: 나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 E-mail: whamin546@gmail.com

여 재 희 (Jae Hyi Yeo)



- 2022년 3월~현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2022년 2월: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E-mail: whamin546@gmail.com